

명품 휴양지로 거듭나는 덕진연못

정부·정치권 두드려 일궈낸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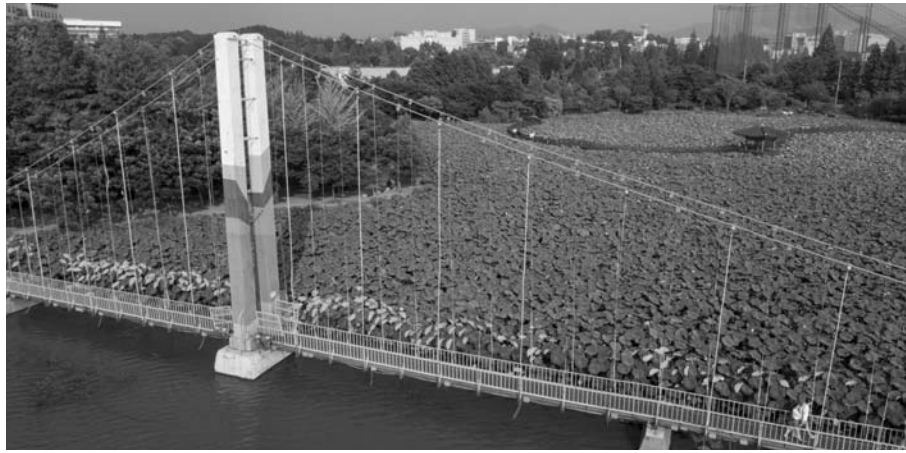
썩어가고 있는 덕진연못의 물은 국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전주시가 20여 차례에 걸쳐 정부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려 일궈낸 결과물이다.

전주시는 그간 도시개발과 유입수량의 부족 탓에 덕진연못의 수질이 악화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청 간부들은 지난 2016년부터 환경부를 찾아다니며 덕진연못을 중점저수지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중점저수지 지정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한해 제한하고 있어 쉽지 않았다. 환경부측은 덕진연못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 만큼 전주시가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펼칠 것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의 끈질긴 설득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시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해 환경부를 14차례나 방문하며, 후배제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덕진연못은 그간 제대로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미사토 퇴적, 녹조현상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찾아다니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지역구 정동영 의원(현 민주평화당 대표),



덕진연못

민중평화당 도당위원장인 김종희 의원, 전북출신 강병원 의원 등을 만나 덕진연못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의 요청에 대해 의원들은 매년 단오제, 연등피우기 등 행사가 열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연간 1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명소인 덕진연못이 수질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수질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나아가, 김 시장은 현장을 찾은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덕진연못의 유래 등 현황과 함께 중점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

기도 했다. 이처럼 전주시와 정치권의 합작으로 덕진연못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저수지임에도 정부의 관례를 깨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는 쾌거를 올리며, 고질적인 수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주 덕진연못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도시화와 유입수량의 부족, 미사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돼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 부담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덕진연못은 고려시대부터 각종 민간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

는 장소이자 대표 관광지"라며 "이번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확정으로 덕진연못이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시민들이 찾고싶은 전주의 대표적 수변·휴양형 저수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덕진공원을 되살리는 일은 수질 개선이 절대적 조건이다. 하지만 전주시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환경부를 노크할 때 모두가 부정적이었다"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정치권과 중앙부처, 헌신적인 전주시 공직자들의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덕진구, 지역아동센터 대상 KBS방송국 체험

전주시 덕진구청은 13일, 아동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주KBS방송국을 견학하는 방송국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덕진구와 덕진노인복지관이 함께 추진하는 '아이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희망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된 기린·아이들천국·푸른초장 지역아동센터 40여명이 참여했다.

이 날 어린이들은 전주KBS방송국 공개홀, 뉴스 및 각종 프로그램 스튜디오, 라디오국 등 주요 시설을 관람하고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만져보기도 하고 아나운서 체험도 하면서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송국의 또 다른 모습에 신기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방송국에

는 아이들, 가수나 배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다음에 커서 재밌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오연화 덕진구청생활복지담당은 "지역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견문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활동과 같은 뜻깊은 복지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들이 성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모든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고 있는 보물과 같다"며, "덕진구의 이번과 같은 희망활동이 아이들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호철 기자

금암도서관, 우리 동네 과학토크 강연 마련

기초과학연구원 김균후 박사 '장기별 혈관의 아름다운 세계'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학생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과학토크'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과학자들이 기초과학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강연으로 전주시 등 전국 9개 도시를 순회하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주시립금암도서관 강연에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소속 김균후 박사가 '장기별 혈관의 아름다운

세계'를 주제로 모세혈관의 특성과 혈관과 관련된 질병 발생의 분자적 기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기초과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에게는 생활 속 기초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계기가,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직업탐색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ib.jon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금암도서관(063-281-6447)으로 전화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3차 실행위원회 개최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센터는 13일 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소속 3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센터는 굿네이버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주덕진경찰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센터 등 CIS-Net 실행위원회 소속 시·군·자치단체의 분과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CIS-Net 긴급지원서비스를 통한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위기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CIS-Net 실행위원회는 전주시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 평가 및 판정,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센터장은 "긴급하고 힘든 고위기청소년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며 "최적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덕진구, 불법 노상적치물 특별점검 나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내 42개 타이어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로(인도)상 상품 적치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덕진구는 이번 특별점검에 27개반을 편성, 타이어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인도에 상품진열, 타이어 등 무단 적치는 위법이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우선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업소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이에 따라, 덕진구는 계고기간을 두어 업소가 우선 자진정비 토록 할 방침이며, 계고기간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로(인도)상 상품 등 적치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토록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덕진구는 오토바이, 중과전 제품 판매업소 및 철물점 등 그동안 민원이 빈번했던 곳들도 특별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대 여성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5명 구속

'살림 독바로 해'... 수차례 폭행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간에 유기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이모(2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A(23·여)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A씨의 시신을 같은 날 군산시 나포면의 한 야간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 2명은 사건 당일 '살림을 독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

유모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최모(26)씨 등 3명은 A씨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이씨와 상의해 유기를 결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 말 A씨의 시신을 옮겨 채자 군산시 옥산면의 한 야간에 유기하기도 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땅 속에 묻은 시신이 들어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함께 살며 A씨가 살림살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 유기 정황을 수상히 여겨 이들에게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